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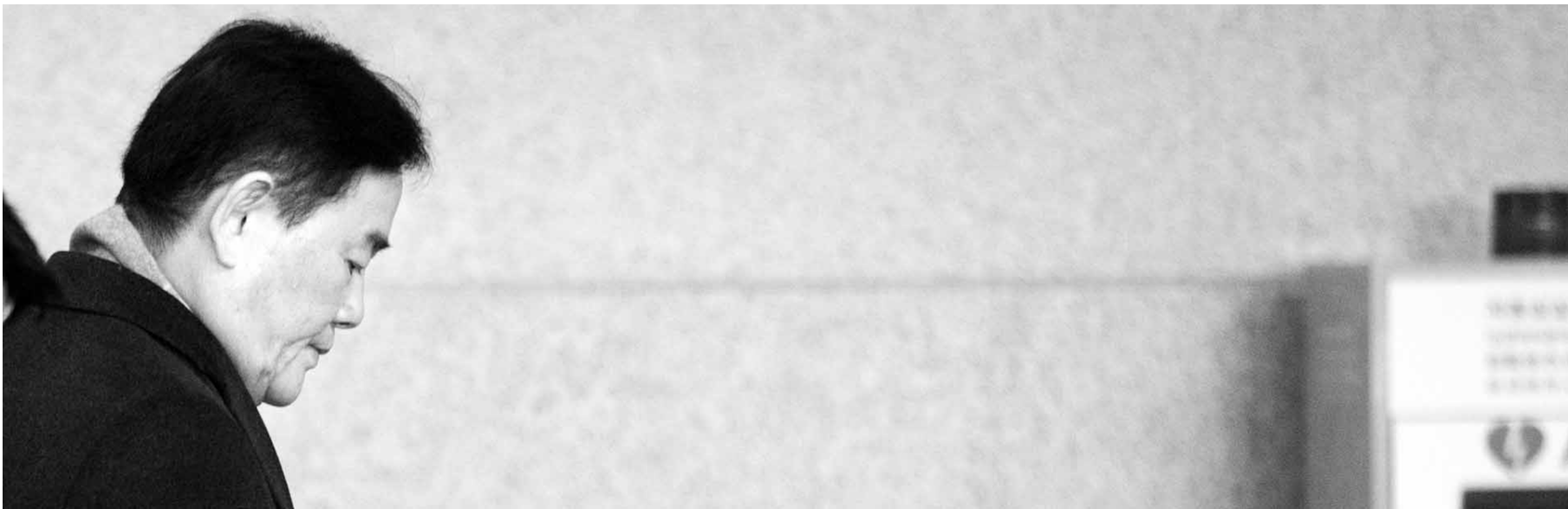
예산정국 끝 이젠 ‘입법 전쟁’

민주 ‘적폐청산’·국민의당 ‘선거구제’·한국당 ‘규제혁파’ 주력

여야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곧 바로 입법 전쟁에 나선다. 여야는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마감되지 만 이달 중 임시국회를 소집해 주요 관심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 중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10여 개에 불과할 정도로 입법 실적이 저조한 데다, 법제화를 통한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완의 적폐청산이라는 인식에 강한 타격이다. 6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예산국회가 일단락됐다. 다음은 민생 입법 국화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어렵사리 마련된 예산

이 민생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같은 당 박범계 최고위원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예산만 확보함으로써 완성되지 않는다. 제도 개선 없이는 과거 국정농단을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 못 붙이게 할 수 없다”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당은 이른바 ‘춧불 민심’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적폐청산의 끝은 법제화를 통한 제도개선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주요 입법사항은 국정원법(개정),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이기간 검찰 개혁 차원에서 공

수처 설치와 함께 거론되는 검정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경제 활성화 6법’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 활성화 6법은 파견근로 하용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비롯한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 산업발전법 등으로 한국당이 과거 여당 때 처리를 모색했던 법안이다. 한국당 측은 “전 세계 흐름에 맞춰 우리도 노동개혁과 구조조정, 규제혁파 등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만 뒤처지기 때문에 관련 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편(선거법 개정)과 헌법 개정에 강한 애착을 드러내고 있다. 확보한 표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이른바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게 국민의당의 목표다. 이 경우 다당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차법 각 당의 중점 처리 법안이 판이한데다 상대 당의 역점 추진 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거나 대체로 부정적이어서 여야 모두 12월 임시국회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최근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위력을 발휘한 국민의당의 선택이 더욱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처리에 공조할 데 이어 입법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국회법상 본회의 자동 부의 규정이 있는 예산안과 달리 일반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입법 공조를 해도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힘들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권불심년’ 검찰 출석 최경환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安 연단 서자마자 고함...통합론에 날선 비판

국민의당 평화개혁연대 토론회

“안철수 네가 나가서 통합해라”, “얼굴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다”, “안철수가 탈당해라”... 6일 오후 2시 ‘국민의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평화개혁세력의 진로와 과제’(평화개혁연대)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2층 1소회의실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한 날선 비난으로 시끄러웠다. 회의실 출입문에 모여있던 10여명의 당원들은 안 대표가 인사말을 위해 연단에 서자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인사말도 필요 없다”, “네가 여기를 왜 오느냐” “무능한 안철수 물러가라” 는 등 고성에도 안 대표는 말문을 열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태연한 듯한 모습이였다. 안 대표는 “이 토론회가 국민의당 지선(지방선거) 승리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고향소리에 파묻혀 청중에게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3분기량의 짧은 인사말을 마친 안 대표는 웃는 얼굴로 자리에 앉았지만 고성은 이어졌다. 안대표 이후 인사말에 나선 김동철 원내대표가 장내를 정리하는 발언을

했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당원들의 비난성 고함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안 대표는 김 원내대표 인사말이 끝나자 애초 참석하기로 한 국민의당 수권비전위원회가 열리는 의원회관 8간담회실로 이동했다.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 세력으로 꾸려진 평화개혁연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당내 반안철수 진영의 구심인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이 주도한 첫 토론회다. 반안철수, 반통합 세력의 본격적인 결집을 보여주는 장으로, 안 대표 입장에서선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었지만 설득을 위해 ‘적

진’에 뛰어들었다가 봉변을 당한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통합의 길을 포기 않는 안 대표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천정배 의원은 “국민의당의 대표는 국민의당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다”며 “냉전적 안보관을 고수하고 망국적 지역패권주의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평화·개혁과는 거리가 먼 세력에 끌려들어가 반문재인·반개혁·반민심의 적폐연대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우리는 유승민 대표의 하락,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제3당 국민의당”이라며 “우리가 언제부터 바른정당 결재받아 예산안을 통과시켰느냐”고 했다. 정동영 의원은 “허망한 숫자를 좇아당을 분란으로 모는 일을 오늘부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호기자 khk@

‘캐스팅 보트’ 역할 극대화 예산 명분·실리 다 챙겼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국민의당이 명분과 실리를 챙긴 가운데 김동철(사진) 원내대표의 역량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국회 예정위 차원에서 좀처럼 내년 예산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최종 협상은 여야 원내대표로 남겨졌고 협상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역할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예결위위원 전남의 황주홍, 광주의 김경진 의원이 지역 현안 예산을 챙기고 자신은 여당의 정책 예산을 압박, 호남 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우 등 지역 현안 예산을 효과적으로 챙겼다. 또 적절한 대안 제시로 여야의 합의를 유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도 힘을 실어줬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의 폐이스에 말리면서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광주·전남지역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이 기대 이상으로 반영됐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예산안 처리 이후, 선거구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고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매개로 선거구제 개편을 공론화한 것이다. 다당제 정착을 외쳐 온 국민의당으로서선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당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다. 지역구별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이 의석을 얻기 어렵다. 대선 연동

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소수당의 의석 배분이 늘어날 수 있어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의 존립 기반이 탄탄해질 수 있다. 당장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제 다당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민주당 압박에 나서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둘러싼 당내 분란 국면에서 통합파와 반통합파의 간극을 좁히는 조정자 역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선전 등 국민의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내 역량 결집이 우선 돼야 한다는 지론이다. 당내 관계자는 “평소 잘못된 일을 참지 못하고 ‘버럭’하는 성격 때문에 김 원내대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각종 당 내외 현안에 노련한 정치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국민의당, 선거구제 개편 공조 넓히기

국민의당이 6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후 헌법개정 및 선거구제 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대체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을 최대 과제로 꼽아온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공감대를 넓히는 동시에 바른정당과의 정책공조로 협상력을 키워가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민의당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향후 선거구제 개편을 본격 논의하기로 약속을 받아 민주당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한국당보다는 민주당이 훨씬 열려있다”며 “전향적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고 기대했다. 국민의당은 한국당이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에 반대하지만,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우군으로 확보한다면 원내 소수당인 바른정당과 정의당까지 연대하면 선거구제 개편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응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에 의석 상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작을 뿐 아니라 민생·개혁 입법 처리를 선거구제 개편보다 우선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형 개헌 등에 이해관계가 비슷한 바른정당과의 긴밀한 공조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4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18. 1.8(월) ~ 17(수)

•전형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 학교 로 오십시오!!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7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석박사통합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5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입학문의 ▶ 학 부 0621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